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참여활동과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본과 이타주의적 행동의 역할

The Rol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ltruistic Behaviors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전광호¹, 최정한², 김요완^{3*}

Kwang-Ho Jeon¹, Jung-Han Choi², Yo-Wan Kim^{3*}

요약

본 연구는 이타주의적 행동이 학습결과인 참여활동과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타주의적 행동의 선행변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영향을 밝힌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250명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243명의 자료에 대해 SPSS 24, LISREL 8.72를 이용하여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빈도분석으로 자료의 기본특성을 확인하였고,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여 신뢰성 분석을 하였으며,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타당성 분석을 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타주의적 행동이 학습결과인 적극적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적극적 참여활동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한계를 밝히며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 긍정심리자본, 이타주의, 참여활동, 학업만족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ltruistic behaviors on the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academic satisfaction of learning outcomes, and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an antecedence for altruistic behaviors. For this purpose, data was collected by conducting an online survey of 250 students at a cyber university, and the presented research model was verified by SPSS 24, LISREL 8.72 for 243 data.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data were confirmed by frequency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was

1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Associate professor]

e-mail: khjeon@iscu.ac.kr

2 Department of Applied Music,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Assistant professor]

e-mail: jhchoi@iscu.ac.kr

3 Department of Family Coaching & Counseling,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Associate professor]

e-mail: kywan@iscu.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November 14, 2021), Review Result(1st: November 29, 2021), Accepted(December 10, 2021), Published(December 31, 2021)



© 2021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performed by confirming the Cronbach's α value.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validit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s a result, resilience and self-efficacy, which are subdimens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altruistic behaviors, altruistic behaviors had a positive effect on active participation activ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which are learning results, and active participation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revealed, and follow-up studies were proposed.

Keyword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ltruism, participation activity, learning satisfaction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한국인의 시민의식, 즉, 공동체 의식과 관련한 이타주의적 행동을 빼놓을 수 없다 [1][2]. 이러한 한국인의 이타주의에 근거한 공공선을 추구하는 행동은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보였다 [3].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변화를 경험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직무의 변화, 교육, 유통 분야 등 사회-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고, 큰 폭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방역의 위기가 심각했을 때 온라인 수업이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팬데믹 상황 이전부터 사이버대학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되는 임시적인 교육수단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시대,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4]. 따라서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습에 관한 연구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교육수단인 온라인 교육 학습자의 안정적인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습활동이라고 하면 온라인 콘텐츠의 학습인 출석, 과제작성, 토론 등의 온라인 수업 도구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학습활동의 적극성 정도는 학업만족도와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특성상 학업만족도는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 [5]. 학업만족도, 성취도와 같은 학습활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는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기관의 지원 등이 있다 [5-8].

이타주의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주로 기업, 병원과 같은 조직 내에서의 효과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9][10]. 학습분야에서의 이타주의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회사 등의 조직 내에서의 학습효과, 리더에 대한 이타주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11][12]. 즉,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의 학습활동 결과에 미치는 이타주의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다. 초중등학교, 대학교 교육에서도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교육환경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공동체의 목표에도 도움이 되는 이타주의적인 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상황에서의 이타주의적 행동을 중심으로, 이타주의적 행동의 원인이 되는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 중도탈락 예방과 학습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 적극적인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인데, 이타주의적 행동이 이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이타주의적 행동을 중심으로, 선행변인으로서 긍정심리자본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타주의적 행동이 학습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적극적인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어 실증연구를 통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연구결과와 관련한 논의와 한계점,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2.1. 이타주의적 행동(altruistic behavior)

이타주의적 행동은 타인을 돕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즉, 조직 내에서 동료들이 일을 수행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돕는 자발적인 행동을 말한다 [13]. 이타주의적 행동은 이타주의(altruism)에 근거한 행동인데, 이타주의 자체가 행동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즉, 이타주의는 조직 내에서의 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의 한 요소로서, 이는 구성원들이 조직 내의 공동 목표를 추구할 때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기보다는 타인을 도우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행동을 말한다 [14]. 이타주의적 행동은 조직 내에서 자신에게 의무로 맡겨진 임무(in-role)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extra-role), 업무 부담을 이겨내며 사심 없이 동료들을 돕고 적극적으로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임무와 규정된 행동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과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고,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5].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 중심의 사이버대학에서는 온라인 학습 환경으로 인해, 개인이 스스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한, 학생 간의 교류가 적어 공부의 노하우, 정보의 교환이 부족하다. 또한 상대평가 상에서 무한 경쟁체제 내몰릴 가능성이 있어, 온라인 학습 환경 속에서는 더욱 이타주의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타주의적 행동으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를 챙기며 도움을 주고받을 때,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의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뤄졌고 [9][10], 기업 성과를 높이는 학습, 또는 리더 교육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11][12]. 즉, 이타주의적 행동이 초중등학교 혹은 대학교, 특

히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습활동 결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다.

2.2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이타주의적 행동의 선행변인

행동적 요인의 이타주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즉, 행동에는 선행요인으로 인지, 감정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있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의 결과로 행동이 야기된다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긍정심리자본을 선행변인으로 하여, 그 결과변인을 이타주의적 행동으로 보았다.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은 긍정심리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심리적 장애의 치료에 관심을 두던 전통적인 심리학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원과 장점 등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이다 [17].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조직은 경제적 자본에서 인적, 사회적 자본 등의 무형자본, 특히 개인의 심리자본을 적절하게 활용할 때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개인의 심리자본으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과 낙관주의(optimism)와 같은 하위요인이 있다 [18]. 특히,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에서의 성과와 만족도 제고의 중요한 선행변인이 된다 [19]. 긍정심리자본, 이타주의를 포함한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신뢰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며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인이 되는 연구가 있고 [20],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때, 감성지능이 조절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 [21].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습결과의 변인과 관련한 학습참여와 학업만족도의 선행변인으로서 영향을 주는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과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습 결과변인과 관련 연구를 살펴본바,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회복탄력성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으로서, 고통과 어려움에 적응, 인내, 회복하는 힘을 말한다.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동기와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여, 인간에게 긍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하게 하는 능력이다. [22]. 회복탄력성은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진이 학업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5].

자기효능감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 인식을 말한다 [23]. 학습상황에서도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적용되는데 [24],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학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긍정심리자본과 학습결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학습만족도 등의 학습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5][22-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중에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이타주의적 행동의 선행변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은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참여 활동과 학업만족도(participation activity & learning satisfaction): 이타주의적 행동의 결과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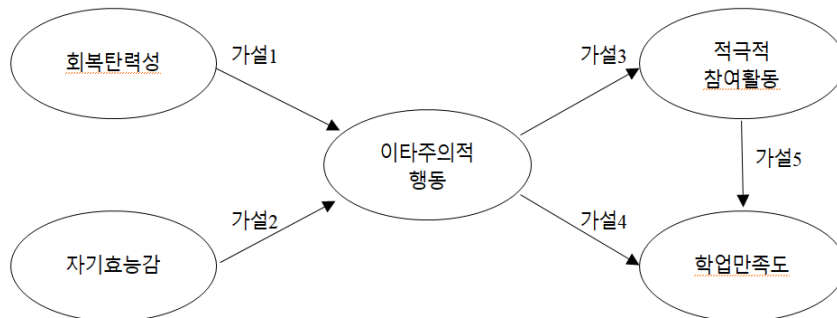
이타주의적 행동은 조직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어려움 극복을 서로 돕는 자발적 행위기에 조직의 성과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13].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이 속한 조직의 성과, 즉 수업이라는 그룹 내에서의 성과를 적극적인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로 보았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상 몰입과 같은 적극적인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는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사이버대학 수업에서의 주요 성과로 보았다 [5][26].

온라인 성인 학습자의 학습참여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 성과의 기대치보다는 작은 영향이지만 이타주의적 행동은 학습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27].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교사의 이타주의적 행동은 학생의 학업만족도에 높은 예측력을 보였고 [28], 교사의 이타주의적 행동은 교사의 직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9]. 또한 온라인 교육, 즉 웹 기반 교육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적 상호작용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0].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이타주의적 행동은 적극적 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이타주의적 행동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적극적 참여활동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위와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으로서,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 및 자기효능감과 이타주의적 행동, 학습결과에서의 적극적 참여활동 및 학업만족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한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들은 특정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했으며,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250명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자 7명을 제외한 243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는 자료제공 동의, 비밀보호 확인,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 논문작성 및 투고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였고 설문 문항에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자 46명(19%), 여자 197명(81%)이었다.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고졸이하 67명(27.6%), 전문대졸 90명(37.0%), 대졸 63명(25.9%), 대학원졸 23명(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분포는 서울지역 43명(17.7%), 수도권 도시지역 109명(44.9%), 지방 도시지역 79명(32.5%), 기타 지역 12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분포는 20대 이하 36명(14.8%), 30대 52명(21.4%), 40대 88명(36.2%), 50대 이상 67명(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Statistics 24.0과 LISREL 8.72를 이용하였다. 응답자 특성 및 자료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성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활용하였다.

3.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모형은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이타주의적 행동, 적극적 참여활동, 그리고 학업만족도 등 5개의 구성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와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결과인 적극적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선택하였다.

회복탄력성 척도는 Wagnild와 Young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회복탄력성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22].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어려운 일을 겪은 후 회복하는 속도, 스트레스를 받고 회복하는 속도, 힘든 일을 견뎌내는 정도, 외부충격에 대해 강한 정도, 역경을 극복하는 정도,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 등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6개 항목에

대해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Parker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자기효능감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31].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6개 항목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의 내용은 자신의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다는 확신 정도, 예상치 못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 정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정도,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고 믿는 정도, 어려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 정도,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이타주의적 행동 척도는 Yong, Sachau, Lassiter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조직시민행동(OCB) 척도 중 하위요인인 이타주의(altruism)에 해당하는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32]. 이타주의적 행동은 동료들이 일을 수행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돕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동료들이 부딪칠 수 있는 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정직하고 선의 조언을 제공해 주는 정도, 도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도,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 유용한 자료나 참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도, 토론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역할을 담당하는 정도 등 7점 척도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적극적 참여활동 척도는 Yong, Sachau, Lassiter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조직시민행동(OCB) 척도 중 하위요인인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에 해당하는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32]. 조직시민행동의 시민적 덕목은 조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는지에 대한 항목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극적 참여활동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4]. 세부 항목은 소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 소모임 활동을 위해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정도, 학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정도, 학교에 잠재적인 문제점을 알리는 정도 등 4개 항목을 포함한다.

학업만족도는 Arnold, Flaherty, Voss, Mowen의 연구에서 만족을 측정했던 항목들을 활용하여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33]. 구체적인 학업만족도에 대한 측정항목은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정도, 공부가 성취감을 주는 정도, 공부가 신나는 정도, 공부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등을 묻는 5개 항목의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 도구들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계수(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신뢰계수는 회복탄력성을 묻는 6개 항목은 0.92, 6개 항목의 자기효능감은 0.95, 이타주의적 행동을 묻는 5개 항목은 0.91, 4개 항목의 적극적 참여활동은 0.90, 마지막으로 학업만족도를 묻는 5개 항목은 0.93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5개 구성개념을 측정한 항목들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alpha > 0.6$)을 모두 초과하고 있어 측정

도구는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4].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5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26개 항목 모두에 대해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회전방식을 직각회전으로 하고 아이겐 값 1 이상의 요인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이타주의적 행동, 적극적 참여활동, 학업만족도 등을 측정한 항목들은 자신의 요인에 높은 적재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요인에는 낮은 적재치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의 요인적재치는 0.64~0.83이었고 다른 요인에 가장 높게 적재된 값은 0.38이었다.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0.70~0.85의 분포를 보였고 다른 요인에는 적재된 최고값은 0.39였다. 이타주의적 행동은 0.68~0.86의 적재치 분포를 보였고 다른 요인에 적재된 최고값은 0.33이었다. 적극적 참여활동의 경우에는 0.79~0.82의 적재치 분포를 보였고 다른 요인에는 0.27의 값이 최고 적재치였다. 학업만족도는 0.77~0.90의 적재치 분포를 나타냈고 다른 요인에 적재된 최고값은 0.28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개념을 측정한 항목들은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증적 요인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157.13(p=0.00, df=289)$, GFI=0.90, NFI=0.93, CFI=0.94, RMR=0.06, RMSEA=0.08인 것으로 나타났다. χ^2 는 표본의 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료와 모형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른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도록 권하고 있다. χ^2 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와 모형은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모형에 적재된 요인적재치(λ)의 최소값은 0.73이었고 최대값은 0.96이었으며 모든 적재치들은 $p<0.01$ 수준에서 t 값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변수들은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집중타당성 확인을 위해 평균추출분산(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확인하였다.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이타주의적 행동, 적극적 참여활동, 학업만족도 각각의 개념신뢰도는 0.93, 0.96, 0.93, 0.91, 0.96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추출분산은 각각 0.70, 0.82, 0.72, 0.71, 0.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중타당성의 판정 기준인 개념신뢰도 0.70, 평균추출분산 0.5를 모두 상회하기 때문에 모든 측정항목들은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판별타당성은 각 구성개념의 평균추출분산의 제곱근과 상관계수의 값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36]. 검토 결과 평균추출분산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계수보다 그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측정 도구들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 가설검증 결과

이 연구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타주의적 행동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보이며, 이와 같은 이타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선행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타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고, 이타주의적 행동의 결과변인으로는 적극적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를 제시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시한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에 대한 공분산 자료를 PRERIS를 통해 구하고 이를 원자료로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과 자료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chi^2=1175.96(p=0.00, df=293)$, GFI=0.90, NFI=0.93, CFI=0.94, RMR=0.07, RMSEA=0.08인 것으로 나타나 자료와 모형은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론적 개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과 2는 이타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학생 특성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제시하였고, 그 중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이타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 1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은 이타주의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경로계수=0.24, $t=2.37$)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설 2는 자기효능감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은 이타주의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경로계수=0.39, $t=3.83$)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이타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설 3과 4는 이타주의적 행동의 결과변인으로 적극적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를 제시하였다. 이타주의적 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에서의 활동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학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가설 3에서는 이타주의적 행동이 적극적 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경로계수 0.63($t=9.46$)으로 이타주의적 행동을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4에서도 이타주의적 행동은 학업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경로계수=0.41, $t=4.92$)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3과 4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5에서는 적극적 참여활동이 학업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분석 결과,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경로계수=0.23, $t=2.65$). 따라서 가설 5도 지지되었다. [표 1]은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

시한 것이다.

[표 1] 가설검증 결과

[Table 1] Result of hypothesis verification

가설		관계	경로계수(t값)	결과
가설 1	회복탄력성 → 이타주의적 행동	+	0.24(2.37*)	지지
가설 2	자기효능감 → 이타주의적 행동	+	0.39(3.83**)	지지
가설 3	이타주의적 행동 → 적극적 참여활동	+	0.63(9.46**)	지지
가설 4	이타주의적 행동 → 학업만족도	+	0.41(4.92**)	지지
가설 5	적극적 참여활동 → 학업만족도	+	0.23(2.65**)	지지
적합도 지수	$\chi^2=1175.96(p=0.00, df=293)$ GFI=0.90, NFI=0.93, CFI=0.94 RMR=0.07, RMSEA=0.08			

* p<0.05, **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조직시민행동의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20][2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이타주의적 행동은 학습의 결과인 적극적 참여활동과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타주의적 행동이 학업 및 직무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27-29].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 결과이다 [30].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이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타주의적 행동은 적극적 참여활동과 같은 행동적인 측면과 학업만족도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이타주의적 행동이 개인의 행동적 측면에는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야기하고 정서적 측면에는 학업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수업 내에서의 목표인 학업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이타주의적인 행동이 개인뿐만 아니라 수업 클래스(class)와 같은 조직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이타주의적 행동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본 연구는 이타주의적 행동이 사이버대학의 학습환경에서도 적용되어 학습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 경쟁력을 갖추며 남

보다 뛰어난 결과를 이루는 것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타인과 협력하고 부족한 사람을 돕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한다. 최근 BTS가 신한류의 흐름을 넘어 전례 없는 초국가적인 문화교류를 일으키는 현상과 [37], 전세계적인 흥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는 이러한 이타주의적인 행동이 관련되어 있다. 즉, BTS와 아미, 아미 간에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 경험과, ‘깐부’와 ‘깍두기’로 대변되는, 서로 돕고 부족한 자를 챙겨주는 이타주의가 전 세계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인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타주의에 기반한 방역의 성공이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2]. 이러한 결과는 이타주의가 조직만의 이익이며 개인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 이러닝 콘텐츠를 온라인 환경에서 공부하여 학생 간 연결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학생 간 교류의 지원 없이 무한경쟁에만 내몰 경우, 결국 학생의 참여도나 만족도를 저해하여 학교에서 이루려고 하는 성과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대학 내에서 멘토링(mentoring) 제도의 활성화, 학생 간 공부모임(study group)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의 학습이 교수자와 학생 간 일대일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실시간 화상수업 시스템을 활용한 상호작용, 토론을 통한 학습활동,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온라인상의 그룹핑(grouping)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 간에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노하우를 전수하며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한다.

셋째, 이타주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긍정심리자본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 중, 본 연구에서 다룬 하위변인인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개인의 노력과 학교 측의 지원이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한다.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정서적인 안정과 관련이 있다. 회복탄력성은 자기효능감과도 영향을 주고받는데, 타인과 공감, 친밀감 유지, 영성의 유지와 같은 요인으로 유지될 수 있다 [38]. 결국 긍정심리자본인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영성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통해 증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 자치 간 서로 대화하고 지지하는 모임, 예를 들면 동료상담(peer-counseling)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학교에서 동료상담자를 양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마음챙김(midfulness) 심리교육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함께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곳의 사이버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 연구로서,

전체 사이버대학 재학생 혹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참고하여, 향후 타 사이버대학 재학생과의 비교연구, 혹은 무선표집을 통한 일반화를 보장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 연구로서 설문조사 방식 연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후속연구로 FGI 연구, 혹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 등의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한 질적연구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분석하여, 위와 같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참여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M. Lee, D. Lee, "Lessons learned from battling COVID-19: The Korean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17, no. 20, October 2020, pp. 1-20, doi: 10.3390/ijerph17207548.
- [2] S. T. Lee, H. S. Kim, "Nation branding in the COVID-19 era: South Korea's pandemic public diplomacy", *Place Branding and Public Diplomacy*, vol. 17, no. 4, October 2020, pp. 382-396, doi: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57/s41254-020-00189-w>.
- [3] M. J. Moon, "Fighting COVID 19 with agility,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Wicked policy problems and new governance challeng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80, no. 4, April 2020, pp. 651-656, doi: 10.1111/puar.13214.
- [4] C. U. Nam, Y. T. Lee, "A study on the Post-Corona engineering education: A mid & short-term plan for engineering education for the great transition of Post-Corona Education", *Ingenium*, vol. 27, no. 2, June 2020, pp. 31-33. doi: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020550933184.page>
- [5] Y. W. Kim, K. H. Je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and satisfaction that affect academic achievement of employed learners at a cyber university,"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vol. 6, no. 3, August 2021, pp. 33-40. <https://dx.doi.org/10.31152/JB.2021.08.6.3.33>
- [6] B. J. Koo, A. R. Kim, "The effect of instructional quality, teaching presence, and professor support on academic optimism and learning flow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an online distance education environment",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6, no. 3, August 2021, pp. 141-148, doi: 10.21097/ksw.2021.08.16.3.141.
- [7] Y. W. Kim, J. S. Park, K. H. Jeon, "A study on the mediating role of the self-dire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ult learners in a cyber univers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19, no. 4, December 2013, pp. 743-764.
- [8] N. Y. Kim, J. E. Kang, "Relations among motivation to participate, organizational support, satisfaction and learning outcomes of female adult learners in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12, December 2011, pp. 958-968, doi: 10.5392/JKCA.2011.11.12.958.
- [9] C. A. Smith, D. W. Organ, J. P. Nea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ts nature and anteced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8, no. 4, October 1983, pp. 653-663, doi: 10.1037/0021-9010.68.4.653.

- [10] S. Mintarti, A. Paminto, T. Hidayati, S. Palutturi,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 and Altruism Commitments and its Effects on Nurses'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Private Hospitals of Samarinda City", *South Asian Research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 2, no. 2, April 2020, pp. 106-112, doi: 10.36346/sarjhss.2020.v02i02.001.
- [11] N. Emilisa, "The role of altruism,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trust: A study from online motorcycle drivers in Jakarta", *Review of Integrative Business and Economics Research*, vol. 8, 2019, pp. 98-109. doi: http://buscompress.com/uploads/3/4/9/8/34980536/riber_8-s2_06_h18-077_98-109.pdf.
- [12] F. Mallén, E. Domínguez-Escrig, R. Lapedra, R. Chiva, "Does leader humility matter? Effects on altruism and innovation", *Management Decision*, vol. 58, no. 5, June 2019, pp. 967-981, doi: 10.1108/MD-11-2018-1180.
- [13] P. M. Podsakoff, S. B. MacKenzie, R. H. Moorman, R. Fetter, "Transformational leader behaviors and their effects on followers' trust in leader,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Leadership Quarterly*, vol. 1, no. 2, June 1990, pp. 107-142, doi: 10.1016/1048-9843(90)90009-7.
- [14] S. Pola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display levels of the teachers at secondary schools according to the perceptions of the school administrator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1, no. 1, January 2009, pp. 1591-1596, doi: 10.1016/j.sbspro.2009.01.280.
- [15] S. B. MacKenzie, P. M. Podsakoff, M. Ahearne, "Some possibl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n-role and extra-role salesperson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vol. 62, no. 3, July 1998, pp. 87-98, doi: 10.1177/002224299806200306.
- [16] D. David, A. Szentagotai, "Cognitions in cognitive-behavioral psychotherapies: Toward an integrative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26, no. 3, May 2006, pp. 284-298, doi: 10.1016/j.cpr.2005.09.003.
- [17] M. E. Seligman,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18] F. Luthans, K. W. Luthans, B. C. Luthan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vol. 47, no. 1, February 2004, pp. 45-50, doi: 10.1016/j.bushor.2003.11.007.
- [19] F. Luthans, B. J. Avolio, J. B. Avey, S. M. Norma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vol. 60, no. 3, September 2007, pp. 541-572, doi: 10.1111/j.1744-6570.2007.00083.x.
- [20] H. Yildiz, "The interactiv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trus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age Open*, vol. 9, no. 3, July 2019, pp. 1-15, doi: 10.1177/2158244019862661.
- [21] R. K. Pradhan, L. K. Jena, P. Bhattacharya, "Impa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oderating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Cogent Business & Management*, vol. 3, no. 1, June 2016, pp. 1-16, doi: 10.1080/23311975.2016.1194174.
- [22] G. M. Wagnild, H. M. Young,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y scale",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 1, no. 2, 1993, pp. 165-178.
- [23] A. Bandura, D. H. Schunk,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no. 3, September 1981, pp. 586-598, doi: 10.1037/0022-3514.41.3.586.

- [24] D. H. Schunk,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26, no. 3, November 2011, pp. 207-231, doi: 10.1080/00461520.1991.9653133.
- [25] Y. J. Joo, N. Y. Kim, H. K. Cho,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online task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nd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in cyber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14, no. 3, September 2008, pp.115-135, doi: G704-000750.2008.14.3.008.
- [26] H. A. Kim, H. J. Kim, "The study on factors predicting adult learners'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istence in distance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7, no. 3, December 2011, pp.51-78. do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0633>.
- [27] N. A. Diep, C. Cocquyt, C. Zhu, T. Vanwing, "Predicting adult learners' online participation: Effects of altruism, performance expectancy, and social capital", *Computers & Education*, vol. 101, October 2016, pp. 84-101, doi: 10.1016/j.compedu.2016.06.002.
- [28] F. G. Sahawneh, L. T. Benu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ctor servant leadership behaviors and satisfaction with instructors in an online setting", *Online Learning*, vol. 22, no, 1, March 2018, pp. 107-129, doi: 10.24059/olj.v22i1.1066.
- [29] H. Song, Q. Gu, Z. Zhang, "An exploratory study of teachers' subjective wellbeing: understanding the links between teachers' income satisfaction, altruism, self-efficacy and work satisfaction," *Teachers and Teaching*, vol. 26, no. 1, April 2020, pp. 3-31, doi: 10.1080/13540602.2020.1719059.
- [30] I. S. Jung, S. H. Choi, C. I. Lim, J. H. Leem,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interaction on learning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 web-based instruction",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vol. 39, no. 2, December 2002, pp. 153-162, doi: 10.1080/14703290252934603.
- [31] S. Parker, "Enhancing role-breadth self efficacy: The roles of job enrichment and other organizational interv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3, December 1998, pp. 835-852, doi: 10.1037/0021-9010.83.6.835.
- [32] L. Yong, D. Sachau, A. Lassiter, "Developing a measure of virtual community citizenship behavior", *Knowledge Management & E-learning*, vol. 3, no. 4, December 2011, pp. 682-696. doi: <http://www.kmel-journal.org/ojs/index.php/online-publication/article/viewFile/144/147>.
- [33] T. Arnold, K. E. Flaherty, K. E. Voss, J. C. Mowen, "Role stressors and retail performance", *Journal of Retailing*, vol. 85, no. 2, June 2009, pp. 194-205, doi: 10.1016/j.jretai.2009.02.002.
- [34] R. G. Nunnally, I. H.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NY, USA: McGraw-Hill, 1994.
- [35] R. P. Bagozzi, Y. Yi,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e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16, no. 1, January 1988, pp. 74-94, doi: 10.1007/BF02723327.
- [36] C. Fornell,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February 1981, pp. 39-50, doi: 10.2307/3151312.
- [37] H. C. Lim, "Globalizing Korean studies: A methodological strategy learning from the K-Wave(Hallyu)", *Hanguk Munhwa*, no. 92, December 2020, pp. 333-353, doi: 10.22943/han.2020..92.011.
- [38] K. J. Reivich, M. E. Seligman, S. McBride, "Master resilience training in the US Army", *American Psychologist*, vol. 66, no. 1, January 2011, pp. 25-34, doi: 10.1037/a0021897.